

DOI: <http://dx.doi.org/10.16933/sfle.2019.33.3.85>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 분석*

한혜민·

(홍콩이공대학교)

안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Han, Hae Min., & Ahn, Jeongmin. (2019).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on Language Anxie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3(3), 85-112.

This study explores the previous research on foreign language anxie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and topic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Brown(2007) mentioned that anxiety is the most significant affectiv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t is known that the language anxiety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bout 705 studies on foreign language anxiety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s as well as dissertation. Among them, this study selected 66 studies after reviewing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topics. The types are sorted by year, dissertations and academic articles, and research target. The topics are categorized as language fun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anxiety, and other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distribute to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 about foreign language anxie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 한혜민, 교신저자 : 안정민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 불안은 제2언어 습득 시 중요한 정의적 요인의 하나로 자아존중, 억제, 모험 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이다. 외국어 불안은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쉽고 다른 정의적 요인보다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Brown(2007)은 불안(anxiety)이라는 개념을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의적 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MacIntyre와 Gardner(1994, p.119)는 외국어 불안을 “개인이 유창하지 못한 제2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걱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다른 형태의 두려움과 구별되며 외국어 학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연구(MacIntyre와 Gardner, 1991, p.112)도 있으나, Oxford(1999)는 저하적(debilitative) 두려움과 촉진적(facilitative) 두려움을 구분하여 언어 학습에 있어 언어 불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Gass(2013) 또한 불안이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 수준의 불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제2언어 교수 · 학습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배울 때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였다. Horwitz, Horwitz와 Cope(1986)은 언어 불안 가운데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불안을 외국어 불안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FLCAS 개발과 함께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학습자들의 외국어 불안 수준과 외국어 학습 간의 관계에 대하여 왕성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MacIntyre와 Gardner(1989)는 외국어 불안을 의사소통 불안, 사회적 평가 불안, 시험 불안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의사소통 불안은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이고, 사회적 평가 불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야 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다.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학습 평가

에 대한 염려를 일컫는다(Brown, 2007).

해외에서는 1986년 Horowitz가 외국어 학습의 불안을 정의한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에 관한 연구는 불과 2003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의 정의적 요인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단 세 편에 지나지 않는다. 강승혜(2014)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사, 학습자 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요인 관련 연구로 정의적 요인 관련 연구가 25편에 이르며 이 중 11편이 불안 관련 연구라고 밝혔다. 동효령(2018a)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동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실 환경에서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불안이 너무 심하면 실제 목표어 발화 상황에서 훨씬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불안이 다른 요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와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원미진(2018)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언어 적성, 동기, 학습/인지 양식, 학습 전략과 함께 불안의 연구 경향을 다루었지만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연구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 전체의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¹⁾ 먼저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를 연도별, 유형별, 연구대상별로 나누어 그 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국어 불안 연구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첫째는 언어 기능별 외국어 불안에 대한 연구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째는 외국어 불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학업 성취도, 다른 정의적 요인, 기타 요인들과 외국어 불안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연구물들의 성과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 다루는 불안감은 외국어 구사 시 느끼는 외국어 불안감으로 한정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나 외국어 학습을 제외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모든 학술 논문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발표된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KCI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²⁾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에서 ‘한국어’와 ‘불안’을 핵심 검색어로 검색하여 1차 검색 목록을 구성하였다. 검색 결과, 총 705건(학위 논문 423편, 학술지 282편)의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 목록을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³⁾ 또한, 제목에 불안이 없더라도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2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2차 검색 목록의 내용을 살펴보며 ‘불안’이 ‘외국어 불안’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 혹은 학습자를 다루고 있지 않는 연구 역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을 다루고 있는 연구 총 66편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III. 한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

2장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66편의 외국어 불안 연구를 연도, 유형, 연구 대상, 주제별로 분류하였다.⁴⁾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연구는 2003년에 처음으로 시

2)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와 학술대회 발표집에 실린 발표 내용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3) 검색일은 2019년 2월 22일이며, 이전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출판된 외국어 불안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과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작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으나 최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는 외국인 불안에 대한 연구가 학위 논문에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도와 연구 유형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 불안 연구들을 내용적으로 학습자 대상과 주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국인 불안에 대한 연구는 언어 기능별 연구와 학업성취도나 다른 정의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연구 결과나 앞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유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 66편의 분석대상 연구들 중에서 2010년 이전(2003년~2008년)의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4편이 전부이며, 2010년 이후부터 학술지에 외국인 불안 관련 연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학위 논문 25편(석사 23편, 박사 2편), 학술지 논문이 36편 발표되었으며, 2018년에 13편(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9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연도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총 66편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이후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 되었다. 2010년 이전의 연구는 4편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 중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는 32편으로 전체의 48.49%를 차지한다.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4) 다른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인 강승혜(2014), 이정희(2011), 동효령(2018a)의 기준을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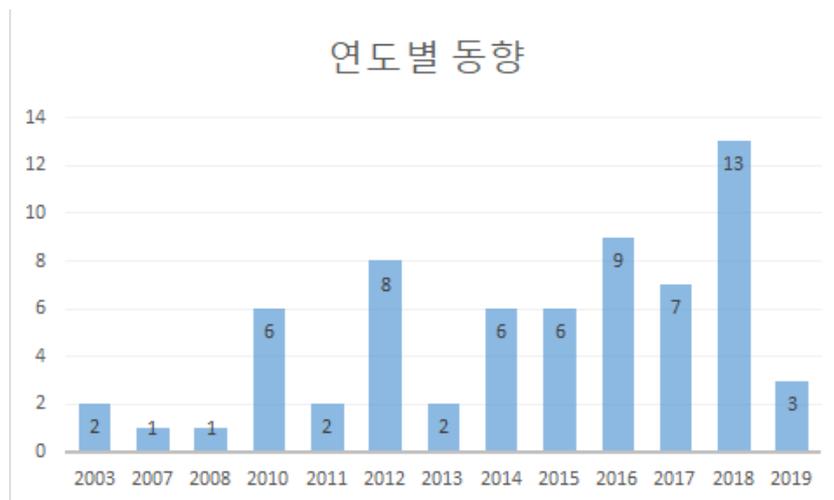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연구 동향

2010년 이전의 연구는 일지 쓰기와 불안감에 대한 연구(신현미, 2003; Revere, 2003)로 시작되어 학습 불안과 학습 전략의 상관관계(윤세윤, 2007), 재한 몽골 학생의 한국어 및 영어 불안 연구(윤성순, 2008)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는 본격적으로 외국어 불안감 연구가 양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는 총 6편으로 학술지 논문 3편(김성연, 2010; 리서첸, 2010;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석사 학위 논문 3편(김지혜, 2010; 권세희, 2010; 조인영, 2010)이 있다. 2010년까지의 연구는 연구 대상과 다양한 불안의 종류(학습 불안, 말하기 불안, 읽기 불안)를 탐색해보는 시기였다.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해는 2018년(13편, 19.7%)이며 그 다음으로 2016년(9편, 13.64%), 2012년(8편, 12.12%) 순이다. 2018년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수 목적 학습자 연구 4편(박지연, 2018; 박현진, 2018a; 안한나, 2018; 한하림, 이지혜, 2018), 언어권별 학습자 연구 기능별 불안 연구 6편(김지혜, 류선숙, 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박현진, 2018b;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 정흔, 2018; 윤소연, 2018)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에는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학술지 연구 3편이 나왔으므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이 예상 가능하다. 최근 국적별 학습자 연구, 학습 목적별 학습자 연구, 수준별 학습자 연구를 비롯하

여 외국어 불안과 여러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연구 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 유형별 연구 동향

유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 66편 가운데 학위 논문이 29편, 학술지 논문이 37편으로 양적으로 비슷하다. 이 가운데 학위 논문의 경우 석사 논문은 27편임에 반하여 박사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박사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 불안 관련 첫 박사 학위 논문인 이효신(2012b)은 외국어 읽기 학습 과정에서 읽기 동기와 불안의 양상과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동효령(2018b)은 학습 동기와 외국어 불안이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학위 논문보다 수가 많았는데, 총 7편의 연구 가운데 학술지 연구가 5편(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Jee, 2012; 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 2012), 학위 논문이 2편(이효신, 2012b; 김나나, 2012)이다.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면 Jee(2012)의 논문을 제외하면 동일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언어권별 학습자(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의 한국어 습득과 심리적 제약의 관계를 연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외국어 불안을 일부 요인으로 설정하여 한국어 습득과 정의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내용이다.

2010년 이전 총 4편의 연구(신현미, 2003; Revere, 2003; 윤세윤, 2007, 윤성순, 2008)는 모두 석사 학위 논문이다. 학술지 논문은 2010년부터 발표되었다. 2012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로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비율이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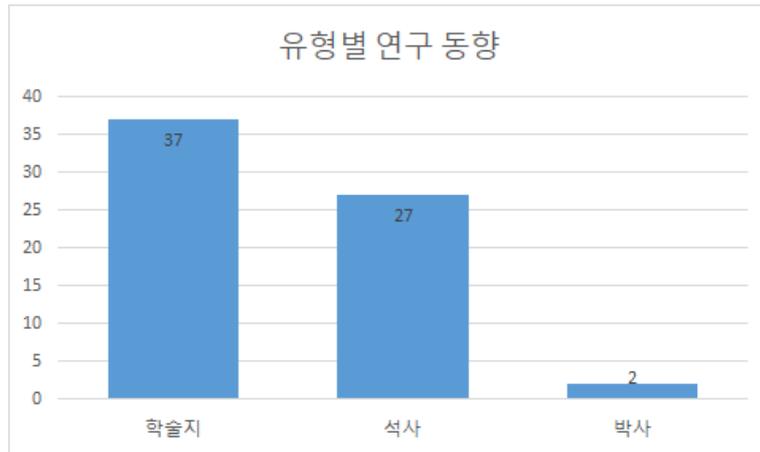


그림 2. 유형별 연구 동향

3.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를 대상에 따라 크게 학습자의 국적, 학습 목적, 학습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언어권별 학습자 연구는 총 34편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2편(김지혜, 2010; 리서첸, 2010; 주운, 2011;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이호신, 2012a; 안승주, 2013; 장혜, 2014; 한인숙, 2014; 화영남, 2015; 장아남, 2015; 조인, 김영주, 2015; 김동선, 2016; 정설군, 2016; 정설군, 김영주, 2016, 조인, 2016, ; 김윤희, 2017; 장혜, 김영주, 2017; 장아남, 김영주, 2015; 노동복, 2013; 정훈, 2018; 동효령, 2018a; 두무현, 2009)이고, 일본인 학습자 대상 연구가 3편(김나나,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원종희, 2017), 베트남 학습자 대상이 1편(박지연, 2017), 태국 학습자 대상 연구가 1편(이해영, 박지연, 2017), 몽골 학습자 1편(윤성순, 2008), 미국 학습자가 6편(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Jee, 2012; 김영주, 2014; 지민정, 2015;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김지현, 2018)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어 불안 연구를 학습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편(신현미, 2003; 윤세운, 2007;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권유진,

김영주, 2011; 장아남, 김영주, 2014; 한성희, 2016; 이선영, 2016; 채은경, 배지영, 2017; 박현진, 김정은, 2017a; 박현진, 김정은, 2017b; 양명희, 김보현, 2017; 박현진, 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한하림, 이지혜, 2018;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 박지미, 2019),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연구가 2편(조인영, 2010; 박지연, 2018)이 있었다. 학습 수준에 따라 초급 1편(권세희, 2010), 중급 5편(조인, 김영주, 2015; 박현진, 2018a; 박현진, 2018b; 김지현, 2018; 양문호, 2019), 고급 4편(김경령, 2016; 정흔, 2018; 윤소연, 2018; 두무현, 2019), 초·중급 1편(신현미, 2003), 중·고급 1편(한성희, 2016), 초·중·고급 학습자 모두를 다룬 논문 4편(이효신, 2012a; 이효신, 2012b; 박지민, 2014; 한인숙, 201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인 불안 연구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 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훨씬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제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불안 관련 연구의 주제는 크게 기능별 연구, 요인 간 관계 연구로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 세부 항목은 기능별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요인 간 관계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다른 정의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누었다. 상세 내용은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표 1. 외국인 불안감 연구의 주제별 범주 구분

항목	범주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인 간 관계	학업 성취도, 정의적 요인, 기타

표 2. 주제별 연구 현황과 연구물

항목	범주	논문 수 (%)	연구물
언어 기능	말하기	15 (22.73%)	권세희(2010), 조인영(2010), 화영남(2015), 김동선(2016), 정설균(2016), 이선영(2016), 정설균, 김영(2016), 김윤희(2017), 원중희(2017), 채은경, 배지영(2017), 김지현(2018), 윤소연(2018), 정흔(2018),

			한하림, 이지혜(2018), 두무현(2019)
	듣기	6 (9.10%)	한인숙(2014), 한성희(2016), 이해영, 박지연(2017), 김지혜, 류선숙(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2018),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2018)
	읽기	10 (15.16%)	리서첸(2010), 이효신(2012a), 이효신(2012b), 김영주(2014), 장혜(2014), 장혜, 김영주(2014), 최아영(2015), 박현진, 김정은(2017a), 박현진, 김정은(2017b), 박현진(2018b)
	쓰기	7 (10.61%)	신현미(2003), 조인, 김영주(2015), 김경령(2016), 전형길(2016), 조인(2016), 박지미(2019), 양문호(2019)
	학업 성취도	7 (10.61%)	김성연(2010),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2010), Jee(2012), 박지민(2014), 권유진, 김영주(2011), 박현진, 김정은(2017b), 박현진(2018a)
요인 간 관계	정의적 요인	15 (22.73%)	Revere(2003), 주운(2011), 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2012), 노동복(2013), 장아남, 김영주(2014), 장아남(2015), 장아남, 김영주(2015), 지민정(2015), 양명희, 김보현(2017), 동효령(2018), 안한나(2018), 원미진(2018)
	기타	6 (9.10%)	윤성순(2008), 김지혜(2010), 김나나(2012), 안승주(2013), 최권진(2016), 박지연(2018)
	합계		66(100%)

1) 언어 기능별 분류

(1) 말하기

말하기 불안감과 관련한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9편(두무현, 2019; 정흔, 2018; 윤소연, 2018; 원종희, 2017; 김동선, 2016; 정설균, 2016; 화영남, 2015; 권세희, 2010; 조인영 2010)과 학술지 논문 5편(김지현, 2018; 이선영 2016; 김윤희, 2017; 한하림, 이지혜, 2018; 정설균, 김영주, 2016)으로 네 가지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 1편(채은경, 배지영, 2017)을 더하면 총 15편이 있었다.

한국어 말하기 불안에 대한 연구 15편을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에 대해 다룬 연구가 3편, 일본인 학습자에 대해 다룬 논문이 한 편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에 대한 연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먼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두무현(2019)은 교육 연구의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드라마를 말하기 수업에 적용한 결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54명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말하기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훈(2018)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 양상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담고 있다. 윤소연(2018)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말하기 불안을 크게 느끼는 발표 상황에서 비디오 피드백을 활용하여 발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디오 피드백이 학습자의 발표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화영남(2015)은 중국인 중급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불안감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인 불안감이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말하기 불안 극복에 대한 연구 4편 중 3편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안감이 말하기 수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원종희(2017)는 일본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과 구어 유창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4급과 5급의 경우 말하기 불안감과 구어 유창성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급에 따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수업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학습자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정설군(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구어 숙달도와 말하기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4급 학습자의 경우 말하기 불안이 구어 산출 유창성 및 정확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5급 학습자의 경우 말하기 불안과 구어 정확성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현(2018)은 언어불안

이 오류 고쳐 말하기를 통한 한국어 학습과정과 수정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오류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학습자의 불안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정설균, 김영주(2016)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급이 되더라도 말하기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고 이것이 구어 유창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내용적으로 말하기 불안 연구를 분류했을 때 세 번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학습자들의 상황 특성과 말하기 불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조인영(2010)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모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문화 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선영(2016)과 한하림, 이지혜(2018)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선영(2016)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발표를 수행할 때, 말하기 불안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 발표 수행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과 달리 기능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하림, 이지혜(2018)는 44명의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토론수행 방해요소가 토론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 인지적 불안과 관련이 깊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의적인 요인이나 의사소통 기능 등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권세희(2010), 채은경, 배지영(2017), 김윤희(2017)를 들 수 있다. 권세희(2010)는 과제 중심 말하기 활동이 언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과제 중심 말하기 활동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과 평가 불안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윤희(2017)는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 152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불안감과 말하기 전략이 성취도 평가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폈는데, 말하기 전략 교수는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 불안감은 성취도와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채은경, 배지영(2017)은 성별에 따라 한국어 표현에 대한 불안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표현 영역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2) 듣기

듣기 기능과 관련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총 6편으로 학위논문 2편(한성희, 2016; 한인숙, 2014)과 학술지 논문 4편(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김지혜, 류선숙, 2018; 이해영, 박지연, 2017;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이 있었다.

듣기 불안에 대한 연구를 내용적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특정 학습 방법이 불안에 끼치는 영향(한성희, 2016)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한성희(2016)은 새도잉(shadowing)이 한국어 듣기 능력, 듣기 불안,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는데, 이 기법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었음을 밝혔고 듣기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했다.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한인숙(2014)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듣기 불안과 듣기 성취도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듣기 불안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 학습 유형과 듣기 불안에 대한 연구(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와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불안을 포함한 다른 듣기 관련 변인들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이해영, 박지연, 2017), 베트남과 한국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에 따라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도 있었다. 이해영, 박지연(2017)은 한국어 듣기에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듣기 효능감이라고 밝혔고, 듣기 점수와 듣기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듣기 효능감이 노출 시간, 듣기 전략, 듣기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2018)에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학습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의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베트남 거주 학습자에 비해 한국 거주 학습자의 듣기 불안이 낮게 나타나고, 전략 역시 한국 거주 학습자가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보이는 듣기 불안의 양상을 연구한 논문(김지혜, 류선숙 2018)도 있었는데 김지혜, 류선숙(2018)은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공과 교양 수업을 한국어로 들을 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보다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듣기 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듣기 불안은 강의 듣기 불안에 끼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읽기

학습자 불안감에 대한 연구 중 읽기 기능과 관련한 연구는 총 10편으로 학위논문 3편(최아영, 2015; 장혜, 2014; 이호신, 2012)으로 박사학위 논문 1편(이호신, 2012)과 석사학위 논문 2편(최아영, 2015; 장혜, 2014)이 있었다. 학술지 논문은 총 7편(박현진, 2018b; 이호신, 2012; 박현진, 김정은, 2017a, b; 김영주, 2014; 리셔첸, 2010; 장혜, 김영주, 2014)이었다.

읽기 불안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장혜, 2014; 김영주, 2014; 리셔첸, 2010)이 눈에 띈다. 장혜(2014)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읽기 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 사용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주(2014)는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미국인 대학생들이 다른 국적 학습자에 비해 읽기 불안이 높다고 밝혔다.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리셔첸(2010)은 131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과 읽기 전략 사용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안도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 간에 그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의 차이가 있음도 밝혔다. 특히, 남성인 학습자와 중·고급 학습자들이 다른 대상에 비해 읽기 불안 영향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특정 학습자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읽기 불안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최아영(2015)은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읽기 불안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다문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에 비해 이해 불안과 텍스트 구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 학습자의 읽기 불안은 한국 거주 기간과 학년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혜, 김영주(2014)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집중하여 읽기 불안을 연구하였고, 이호신(2012a)은 일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을 연구하였다. 이호신(2012a)은 13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학습자들이 쓴 일지를 분석하여 읽기 불안 요

인들을 분석하였다. 총 105편의 읽기 일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읽기 불안을 겪는 원인으로서는 복잡한 언어적 구조, 이해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단어, 어려운 주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읽기 불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효신(2012b)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읽기 동기와 읽기 불안이 한국어 읽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불안 수준은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한국어 읽기 불안은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박현진(2018)은 한국어 읽기 불안도와 불안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여러 불안 하부 요인 중에서 ‘어휘와 문법’ 요인이 전체 불안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고, 학습자들의 불안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현진, 김정은(2017a)은 고급 수준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읽기 불안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읽기 불안 구성 요인으로는 어휘 관련 불안, ‘부정적 인식 관련 불안’, ‘외국어 읽기 관련 불안’, ‘이해 관련 불안’, ‘문화 관련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읽기 관련 불안’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 읽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현진, 김정은(2017b)은 불안 요인이 읽기 불안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하였는데, 학문 목적 고급 학습자들의 불안 수준에 따라 불안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4) 쓰기

쓰기 기능과 관련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모두 7편⁵⁾으로 학위논문이 4편(양문호, 2019; 박지미, 2019; 조인, 2016; 신현미 2003)과 학술지 논문이 3편(전형길, 2016; 조인, 김영주 2015; 김정령, 2016)이다.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쓰기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5) 말하기와 쓰기 불안 상관성에 대해 다룬 채은경, 배지영(2017)은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 양쪽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말하기 불안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쓰기 기능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방안 연구로 신현미(2003), 박지미(2019), 양문호(2019)가 있었다. 신현미(2003)에서는 한국어 쓰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대화 일지 쓰기를 활용하는 방안과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화 일지 쓰기가 학습자의 쓰기 불안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지미(2019)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말하기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쓰기와 연계한 말하기 활동을 ‘내용 지식 생성을 위한 말하기 활동’, ‘언어 지식 생성을 위한 말하기 활동’, ‘쓰기에 대한 적극적 태도 및 동기 유발을 위한 말하기 활동’으로 제안하였다. 양문호(2019)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연구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연구한 논문(조인, 김영주, 2015; 조인, 2016)이 있었다. KSL과 KFL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살펴본 결과 KFL 학습자의 불안이 더 높았고, 성별 및 쓰기 점수와 쓰기 불안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다른 요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전형길(2016)과 김정령(2016)을 들 수 있다. 전형길(2016)은 한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어 쓰기 불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쓰기 불안이 모국어 쓰기 불안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어 쓰기 불안은 학습자의 학습 상황과 숙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김정령(2016)은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가 높아지더라도 불안감 요인은 계속 존재하며, 교사의 피드백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것과 불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 불안도가 낮은 학습자가 더 긴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 간 관계 연구

(1) 학업성취도와 불안감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총 7편으로 학위 논문 1편(박지민, 2014)과 학술지 논문 6편(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김성연, 2010; Jee, 2012; 권유진, 김영주 2011; 박현진, 김정은, 2017; 박현진, 2018a)이 있다.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2010)는 외국어 불안과 교실 상황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외국어 불안은 학업 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외국어 불안 중 의사소통 불안은 말하기, 쓰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평가 불안은 듣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김성연(2010)은 재미 한국계 대학생들 18명을 대상으로 성취 목표 동기 외국어 학습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안감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으며 불안감과 도구적 동기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Jee(2012)는 수준이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수업 불안감 척도 설문을 실시하여 외국어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성적을 달성했음을 보였다.

박지민(2014)은 초·중·고급의 다국적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언어권별 학습자 분류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고급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가, 학력에서는 대학원/대학 이상의 학습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학습자가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취도에 한국어 불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권유진, 김영주(2017)는 경기도 내 대학부설기관 학습자 179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불안과 학업 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현진, 김성은(2017)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불안 요인이 제2언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읽기 불안은 이해, 외국어, 어휘, 문화와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일기에 영향을 끼쳤다. 박현진(2018)은 55명을 대상으로 쓰기 불안을 측정하였는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쓰기 불안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제1언어 쓰기 불안은 제2언어 쓰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제2언어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제1언어와 학업 성취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정의적 요인과 불안감

정의적 요인과 불안감에 관련된 연구는 총 15편이고 이 중 학습 동기와 불안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6편으로, 학위 논문이 4편(Revere, 2003; 주운, 2011; 장아

남, 2015; 동효령 2018), 학술지 논문이 2편(장아남, 김영주, 2014; 지민정, 2015)이다. Revere(2003)는 교실 상호작용이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일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교실 내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료 학습자와의 협동 학습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을 밝혔다. 주운(2011)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였다. 장아남, 김영주(2014)는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장아남(2015)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분석 연구를 설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민정(2017)은 미국의 한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등록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살펴보고 학습 동기의 하위 변인과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동효령(2018)은 중국 지역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동기와 외국어 불안이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 불안이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어 습득과 정의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은 총 9편(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노동복, 2013; 장아남, 김영주, 2015; 양명희, 김보현, 2017; 안한나, 2018; 원미진, 2018)이다. 2012년에 발표된 4편의 연구는 언어권 별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 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 연구로 프랑스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의 한국어 숙달도, 문법성 판단 테스트, 언어 적성, 작업 기억, 동기, 불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노동복(2013)은 부산 3개 대학의 중국인 학습자 125명을 대상으로 정의적 요인이 자율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 태도 요인이 학습 동기나 불안감에 비하여 자율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안한나(2018)는 학문 목적 학습자와 직업 목적 학습자의 학습 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반복하는 반면 직업 목적 학습자들은 불안의 정도가 학습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짐을 보였다.

윤세윤(2007)은 정의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학습 전략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기억 전략과 듣기 불안, 인지 전략과 읽기 불안, 정의적 전략과 읽기

불안, 사회적 전략과 시험 및 평가 불안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3) 기타

기타로 분류된 연구는 학업 성취도, 정의적 요인, 전략 이외 개념을 주제로 한 연구들로, 총 6편(윤성순, 2008; 김지혜, 2010; 김나나, 2012; 안승주, 2013; 최권진, 2016; 박지연, 2018)이다. 윤성순(2008)은 한국의 몽골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불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김지혜(2010)는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불안과 문화 적응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불안 요인이 문화 적응 요인 및 구성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김나나(2012)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장면에 따른 한국어 불안 양상 연구에서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상황으로 나누어 외국인 불안을 살펴보았다. 교실 안에서의 한국어 불안은 ‘발화활동의 긴장’, ‘상황 파악의 부정확함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낮은 한국어 능력에 대한 걱정’, ‘타인 의식에 대한 긴장’으로 구성되었고, 교실 밖 한국어 불안의 경우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낮은 한국어 능력에 대한 걱정’, ‘공적 장면에서의 긴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유창성에 대한 걱정’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모든 요인은 서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안승주(2013)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의지를 살펴 보며 의사소통불안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능력도 낮아지며 말하고자 하는 의지와 빈도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사소통불안은 실제 의사소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의적 요인들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최권진(2016)은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불안 척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불안을 측정한 후 결과가 지니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불안은 학습 의욕을 증진하는 촉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연(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노동자들의 언어 불안이 한국어 학습의 원인과 결과에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 66편을 대상으로 연구 유형을 분석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물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3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다른 외국어 교육 연구보다 늦은 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사학위 논문은 2편에 지나지 않았고 석사학위 논문 27편, 학술지 논문 37편으로 아직까지 외국어 불안 연구가 양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는 언어 기능별, 요인 간의 관계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언어 기능별 연구는 세부적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나누었고 요인 간 관계는 학업 성취도와 불안, 정의적 요인과 불안,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불안이 다른 언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와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 등 논쟁적인 결과를 낳은 부분들이 있다. 물론 연구 대상자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요소들이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지 더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단편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외국어 교수법의 적용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 불안에 대한 연구가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감 연구에 많은 연구가 집중된 경향이 보인다. 더 다양한 언어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한국어 학습자들의 불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고에서 다룬 학습자의 불안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의 불안감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교사의 불안감 자체를 연구 주제로 다룬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인 연준흠(2011)과 한원석(2016)이 있다. 연준흠(2011)에서는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한국어 교사도 외국어로 인한 불안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초보

교사의 일지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자신감과 불안감에 영향을 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원석(2016)은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불안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태국인 한국어 교사의 교수 불안감에 대해 논하였다. 태국인 교사들은 비원어민 교사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며, 한국어 능력의 부족,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안정민(2017)에서도 한국어 교사들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비원어민 교사뿐 아니라 원어민 교사들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비원어민 교사들이 증가하고, 원어민 교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불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 결과들이 밝히고 있듯이 교사와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 (2014). 한국어교육 연구에서의 교사, 학습자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56, 1-29
- 권세희. (2010). 과제 중심 말하기 활동이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불안과 흥미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 권유진, 김영주. (2011).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5, 27-49
-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외국어불안과 교실상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5, 381-402
- 김경령. (2016).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3(3), 29-68
- 김나나. (201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장면에 따른 한국어 불안 양상

-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동선. (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불안과 말하기 유창성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성연. (2010). 재미 한국계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불안, 성취동기,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4(1), 243-267
- 김영주. (2014). 미국인 대학생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 사용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1, 61-88
-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 심리적 제약. *이중언어학*, 49, 59-86
-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 심리적 제약. *국어교육*, 139, 557-588
-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국문학*, 162, 5-43
- 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 (2012). 프랑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어학*, 56, 29-62
- 김윤희. (2017).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불안감 및 학습 전략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글*, 318, 221-242
- 김지현. (201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습과정에서 언어불안이 오류 고쳐 말하기의 효과와 수정출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32(2), 1-25
- 김지혜. (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불안과 문화적응과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김지혜, 류선숙. (2018).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불안 연구. *이중언어학*, 73, 93-121
- 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유형과 듣기 불안의 상관관계 연구. *우리말 글*, 77, 23-49
- 노동복. (2013).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자율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문화학*, 10(2), 49-70
- 동효령. (2018a).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 동기 연구 동향 분석. *새국어교육*, 144, 194-224
- 동효령. (2018b). 읽기 동기 및 불안과 한국어 읽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 두무현. (2009). 창의적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불안 감소 효과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리서첸. (2010).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이 읽기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와 문화*, 6(3), 107-133
- 박지미. (2019).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불안 해소를 위한 말하기 활동 연계 방안 연구 :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서울.
- 박지민. (201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불안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박지연. (2018).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불안에 관한 연구 : '한국센터' 베트남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현진. (2018a).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L1, L2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문논집*, 83, 142-176
- 박현진. (2018b). 한국어 읽기 불안도와 불안 요인의 상관성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60, 361-393
- 박현진, 김정은. (2017a). 불안 요인이 제2언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증감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31(2), 277-299
- 박현진, 김정은. (2017b).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읽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67, 129-160
- 신현미. (2003). 대화일지 쓰기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안승주. (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불안과 의사소통의지(WTC)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안정민. (2017). 외국어 변인에 대한 한국어 교사 인지 연구.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안한나. (2018).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2), 27-54
- 양명희, 김보현. (2017). 고급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교실 내 한국어 불안 수준

- 및 요인 연구. *사회언어학*, 25(1), 119-140
- 양문호. (2019). 한국어 학습자 쓰기 불안의 요인별 교수 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전.
- 연준흠. (2011). 초보 한국어 교사의 교사일지에 나타난 자신감과 불안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원미진. (2018). 한국어교육 학습자 연구의 경향과 전망 -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0, 115-148
- 원종희. (2017).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안과 구어 유창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윤성순. (2008). 제한 몽골 초등·중등 학생의 한국어 및 영어불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윤세윤. (2007).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불안과 학습전략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윤소연. (2018). 한국어 발표불안 완화를 위한 비디오 피드백 활용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이선영.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 통제 전략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 56, 321-352
- 이정희. (2011). 한국어 교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713-733
- 이혜영, 박지연. (2017).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효능감, 듣기 전략, 듣기 불안, 듣기 노출 시간의 상관성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8(3), 85-104
- 이효신. (2012a). 읽기 동기 및 불안과 한국어 읽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1), 221-245
- 이효신. (2012b). 읽기 동기 및 불안과 한국어 읽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구.
- 장아남. (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분석 연구 :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장아남, 김영주. (2014). 한국어 학습자의 L2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310-337
- 장아남, 김영주. (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 연구. *인문학논총*,

- 37, 233-258
- 장혜. (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장혜, 김영주. (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연구. *언어학연구*, 32, 229-253
- 전형길. (201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에 관한 연구-모국어 쓰기 불안과 한국어 쓰기 불안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6, 381-409
- 정설균. (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과 구어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정설균, 김영주. (2016).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과 구어 숙달도 간의 상관관계 -정확성과 유창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53, 267-294
- 정훈. (2018). 한국어 학습시 교실에서 느끼는 말하기 불안 양상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조인. (2016).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불안 연구 : KFL과 KSL 학습자의 불안요인 및 쓰기 성적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조인, 김영주. (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 연구. *인문학논총*, 38, 95-122
- 조인영. (2010).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주운. (2011).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지민정. (201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구. *한국어교육*, 26(2), 213-238
- 채은경, 배지영. (2017).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쓰기 불안 상관성에 대한 연구. *韓民族語文學*, 78, 65-89
- 최권진. (2016). 제2언어학습 환경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관한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2
- 최아영. (2015). 초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읽기불안 비교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년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한성희. (2016). 새도잉(shadowing)이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 듣기 불안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학문 목적 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한원석. (2016). 태국인 한국어 교사의 교수 불안감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한인숙. (2014).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한하림, 이지혜.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불안 연구. *이중언어학*, 71, 333-360
- 화영남. (2015).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불안 감소를 위한 교육연극 활용 수업 모형 개발 연구 :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Jee, M. J. (2012). Effects of Language Anxiety on Three Levels of Classe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한국어교육* 23, 467-487.
- Revere, S. C. (2003). 교실 상호작용이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 : 일지 연구(diary study)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Phuong, T. T. T., 정혜선. (2018). 한국어 학습 환경에 따른 듣기 불안 및 듣기 전략 사용 양상 연구 -베트남 대학 학습자와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학습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 , 429-452.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Inc.
- Gass, S., Behney, J., & Plonsky, L. (201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New York: Routledge.
- Horwitz, E., Horwitz, M.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Modern Language Journal*, 70, 125-132.
- McIntyre, P. & Gardner, R. (1989). Anxie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9, 251-175.
- MacIntyre, Peter D. & Gardner, R. (1981). Methods and Results in the Study of Anxiety and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Language*

Learning 41, 85-117.

MacIntyre, Peter D. & Gardner, Robert C. (1994). The subtle effects of language anxiety on cognitive processing in the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44*, 283-305.

Oxford, R. (1999). Anxiety and the Language Learner: New Insights. In J. Arnold (Ed.), *Affect in Language Learning* (pp. 58-6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rean Abstract>

한혜민, 안정민 (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연구*, 33(3), 85-112.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 다룬 논문을 살펴, 외국어 불안감 연구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 논문이다. Brown(2007)이 밝힌 바와 같이 불안감은 제2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적 요인 중 하나이고,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감을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망라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외국어 불안감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66편을 살펴 연도별, 유형별, 연구 대상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중 주제별 분석은 언어 기능별 외국어 불안 연구와 외국어 불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을 살피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Key words: foreign Language anxiety, research trend, affective factors, learner variables, KFL /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 정의적 요인, 학습자 변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Examples in: Korean
Applicable Languages: Korean etc.
Applicable Levels: Tertiary

Han, Hae Min
Lecturer
Minor in Korean Programme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G502, Dept of Chinese & Bilingual Studies, Hung Hom, Kowloon, Hong Kong
TEL: +852-2766-6361
E-MAIL: hannah.han@polyu.edu.hk

Ahn, Jeongmi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91
TEL: (02) 2173-8816
E-MAIL: oxygenajm@gmail.com

received in July 15,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ugust 11, 2019
revised version accepted in August 14, 2019